



희년을 준비하며: 『기도, 하느님과 대화하는 기술』¹⁾

8월

■ 영혼의 '오아시스'³⁾

매 시대마다 수도승이나 수녀들처럼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이들은 자기네 공동체를 특별히 아름다운 장소에 마련했습니다. 이 장소들은 관상적 삶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곧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장소의 아름다운과, 도시와 큰 교통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야 보장되는 고요함이란 요소입니다. 고요함으로 점철된 환경은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명상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고요함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말하자면 고요함이 자신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기도를 위한 내적 준비가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수도원에는 안뜰을 둘러싼 회랑, 곧 십자로가 있는데, 이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것은 닫힌 공간이지만, 하늘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8월 11일 내일 아시시의 클라라 성녀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란치스코 회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소중한 영혼의 오아시스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시시 밑에 위치하고,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Santa Maria degli Angeli' 성당을 향해 경사진 올리브 숲 속의 작은 수도원 '성 다미아노 San Damiano'입니다. 프란치스코가 회심을 하고 다시 세운 이 작은 성당에는 클라라와 그녀의 첫 추종자들이 등지를 틀었습니다. 기도와 노동으로 살았던 그들은 '가난한 자매들'이라 불리었습니다.

수도 공동체가 사는 장소의 고요함과 아름다움(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아름다움)은 신적 조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동체가 지향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몇몇 수도원은 매우 오래되었지만, 다른 것들은 최근의 것이고, 또 다른 것들은 새로운 공동체들이 다시 세웠습니다. 영적 견지에서 볼 때, 이 영혼의 장소들은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근간입니다!

우리는 클라라 성녀를 기념했습니다. 한편 8월 9일 어제 기념일이었던 유럽의 공동 주보성인 십자가의 복녀 테레사 Teresa Benedicta vom Kreuz, 다시 말해 가르멜 회원 에디트 슈타인 Edith Stein처럼 '천상적인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다른 성인들 역시 기념합니다. 그리고 8월 10일 오늘 부제이자 순교자인 성 라우렌시오 Laurentius를 잊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그를 주보성인들 중 하나로 공경하는 로마인들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과 기도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동정녀 마리아께 시선을 돌시다.

3) 가스텔 간돌포, 2011년 8월 10일.



복음나누기

연중 제19주일(8월 11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요한 6,41-51)



만나를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를 탈출하여 사막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느님께서서는 만나를 내려 주셨다. 사람들은 장막 앞의 바닥에 떨어진 만나를 앞치마와 항아리 등에 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막에서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거행하신 성체성사의 예형이 된다. 구약의 백성은 만나를 먹었다면, 신약의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작가 로베르티 | 1479년, 유채, 내셔널 갤러리, 런던, 영국



복음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34번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 주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 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41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42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45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46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4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50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요한 6.44)

성당을 향하는 발걸음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요한 6.51)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인 성체를 얼마나 자주 모시려고 하는지 살펴봅시다.



복음나누기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큰 사랑이라도 그것은 당신의 사랑의 흉내에 불과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듯이,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젖으로 우리를 기르지만, 당신은 피와 살로써 기릅니다. 어머니는 젖으로 우리 육신을 키우지만, 당신은 살과 피로써 우리 영혼을 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생명 이상의 것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이기엔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 유한과 무한, 순간과 영원, 빛과 어둠, 창조주와 피조물... 정반대가 아닙니까. 무한한 은총이 내려나 나는 밑 빠진 항아리. 쏟아져 흐르고 아, 당신의 고귀한 피는 이렇듯이 낭비됩니다. 주여, 부서진 항아리를 고쳐 주소서. 교만과 냉담으로 부서진 이 마음을, 성심이여, 당신 안에서 새로이 만들어 주소서. 당신은 죄와는 같이 있을 수 없기에 이렇게 쉽사리 나는 당신을 잃고 맙니다. 카메라의 필름이 햇빛을 받으면 못 쓰게 되듯, 당신을 모신 내 마음에는 죄만 어른거리면 당신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출처 : 배문한, 『나는 오롯이 당신 것』, 광주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8, 55.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